

출판이 도전해야 할 때

이중환

서울신문 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최근 나는 서점에서 책의 운동장이 너무 재미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마당국을 하듯 잔뜩 모여 있던 열기들이 갑자기 흩어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물량적으로 쏟아져서 상당히 부러워하며 읽어야 쫓아갈 수 있었던 추리소설류들이 나오기를 멈췄다. 지난해 톰 클랜시의 《적과 동지》가 간행된 후로는 외국 추리소설로 저작권 경쟁을 하던 일은 이제 끝난 모양이다. 그러나 출판사들이 경쟁을 포기해서 정지된 일은 아닌 것 같다. 독자들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화와 연관된 서목들도 눈에 띄게 사라졌다. 이 시대가 영상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영상시대를 천착한 책들은 아직 제대로 선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우리 시장 영화서적은 매기를 잃고 있는 것이다. 아직 쌓여 있는 것은 비디오 읽기식의 단상류뿐이다. 이들 역시 비디오 풍토가 지쳐가고 있으므로 더 무반응단계로 갈지도 모른다.

대학시험 때문에 한국에서만 특별하게 장사가 됐던 논리 시리즈도 어느새가 기가 죽었다. 정말 무논리하게 ‘논리아 나하고 놀자’ 시리즈로까지 발전했던 항목인데, 논리적 훈련이 돼서 이제는 팔리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풍수지리에 관한 책들도 1년전까지는 대단했다. 실명제가 확산되고 땅 사고 팔기가 줄어들어서 이 책들의 효용도 준 것일까. 아니면 살 사람은 다 샀다는 것일까.

사회와 의식이 지쳐 있을 때가 오히려 출판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결코 관심이 시의적으로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없는 건강 시리즈도 시들해진 것은 이상하다. 몇권 읽으면 건강식 정도 내용은 더 볼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일까. 외설기를 주제로 하는 소설들, 그리고 넌 픽션류들까지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외설이라면 포르노비디오가 사방에 널려 있으니 굳이 힘들게 읽는 포르노를 즐겨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지난 2, 3년간 정말 정력적으로 간행되었던 덩어리에 기업경영 도서가 있었다. 벤치마킹·다운사이징에서 시작해서 경영형식·경영창조·리엔지니어링 등의 도서는 어느 책이 어느 책인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쏟아졌는데, 이 역시 지난 가을 이후 마치 휴전이나 한 듯 조용해졌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를 그저 출판불황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때문에 왜 한꺼번에 몰아서 지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볼아야 할 것 같다.

어떤 책, 어떤 작가, 또는 어떤 내용이나 형식 하나가 성공을 하면 너무 많은 출판사들이 일시에 그와 비슷한 아류를 만들기에 몰려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한 항목이 반년도 되지 않아 포화상태를 만들고, 그

사이 독자도 빠르게 식상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가 하면 한편 우리의 평균적 독자들의 관심사가 너무 단조롭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사회전반적으로 우리의 단순함은 누구나 알 만큼 분명하다. 취미나 취향 그 어느것에서도 다양성을 찾지란 매우 어렵다. 한두가지 주제에 매달려 물개성하게 사는 것은 TV드라마들에서도 드러난다. TV채널이 여러 개 있지만 사극이나 애정극이나 어느 채널을 보아도 일정기간 그 주제와 흐름이 같음을 볼 수 있다. 그러다가 모든 채널이 한꺼번에 시들해진다.

이 일반적 취향에는 사회적 계층이나 연령적 차이도 없다는 놀라운 획일성까지 들어 있다. 세계가 지금 개별화·다양화되고 있다는 현실에서 보면 앞으로 변화를 살아갈 능력으로서는 뒤를 돌아 거꾸로 가고 있다는 우려도 해볼 만하다.

읽기 취향이 아니라 출판의 취향도 이 분위기에 같이 휩쓸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야 할까.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출판의 입장일까. 물론 아닐 것이다.

출판은 의식의 흐름에 어느날 경종을 울리면서 깨우쳐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출판의 위대함이며 그간의 전위를 만들어온 열쇠이다.

사회와 의식이 지쳐 있을 때, 취향마저 생기를 잃고 해매고 있을 때가 오히려 출판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 ❖

출판저널

통권 제191호/1996년 5월5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박남정 허연
 최성일 이현주
디자인—윤정자
사진—김지욱

업무부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우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매이나 사무실로 우송해 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살아 움직이는 손길

곧,

책장을 넘기는 순간입니다.

”

■ 독서계의 흐름과 출판계의 이모저모로 이채롭게 꾸며,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엮은 합철본을 새로 제작, 한층 자료가치를 높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합본1호(날권1~10호) 5,000원(판매) • 합본6호(날권51~60호) 9,000원(판매)
- 합본2호(날권11~20호) 5,000원(판매) • 합본7호(날권61~70호) 10,000원(판매)
- 합본3호(날권21~30호) 5,000원(판매) • 합본8호(날권71~80호) 10,000원(판매)
- 합본4호(날권31~40호) 5,000원(판매) • 합본9호(날권81~90호) 10,000원(판매)
- 합본5호(날권41~50호) 5,000원(판매) • 합본10호(날권91~100호) 10,000원(근간)

* 구독의 불편·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서신등을 통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료는 합본제작비로 인해 수취인 부담관계로 직접방문, 구입하시면 유리합니다.